

# 잇단 사고에도...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불감 여전

## 광주노동청, GGM 근로감독 결과 보니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부실한 안전 조치 실태가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청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시정했던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당국의 관리 감독 중 또 다시 확인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은미 진보당 국회의원이 15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3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별개로 11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GGM에서는 지난달 23일 시설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이뤄진 근로감독에서 확인한

지난해 8월 사망사고 당시 근로감독 결과 위반 23건 적발 불구 개선 안돼  
올 1월 추락사에 또 조사했더니 13건 위반 ... 고용부 감독 실효성 의문도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작동 등 13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업무소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미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도로용 희석제-용정분-배관밀봉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노동청이 과태료 처분한 GGM측 위반사항의 경우 지난해 8월 여성 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어 숨진 뒤 실시된 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도 적발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청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회사측의 안전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청은 당시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23건)을 적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이 당시 과태료 처분했던 10건 중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업무소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업무소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미게시 등의 사항은 이번 점검에서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당국의 형식적 점검과 사업장의 생색내기식 시정 조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의 실효성 없는 근로감독 대신, 산재사고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근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 조치 외에 근로감독 때마다 지적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심사위원회'의 미흡한 심사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 개선이 완료되면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현장 조사가 아닌, 서류 검토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불만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도 "작업중지 해제 심사는 대면조사가 원칙으로 보통 사업주 측이 개선사항의 현장 사진을 첨부해 직접 심사위원회를 방문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산재사고 발생 뒤 진행된 근로감독과 올해 산재사고로 인한 근로감독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신주 나뭇가지 제거작업 중 강진에서 노동자 추락해 사망

공중화장실 공사를 위해 전신주에 올라갔던 노동자가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5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에서 공중화장실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A(45)씨가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 현장 내 심어진 나무를 자르다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 장비 없이 전신주에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추락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군청 등을 통해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장유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외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

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 시장의 주장과 관련,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불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 점, 1억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회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간 5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설 연휴 뒤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 15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설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나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고 했다.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선고 결과를 놓고 방청객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설 연휴 5대 범죄 50% 감소

###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줄어

설 연휴 기간(11~14일) 광주·전남지역 5대 범죄가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광주경찰청은 15일 올해 설 연휴(11~14일) 기간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범죄)와 중요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범죄)의 범죄를 말한다.

교통사고는 38건 발생, 지난해 설 연휴(47건) 대비 19.5% 줄었지만 사망자가 2명 나왔다. 읍·군 단속 건수는 54건으로 지난해(36건)보다 50% 늘었다.

112신고는 나흘간 5016건이 접수돼 지난해 설 연휴(4896건)에 비해 2.5% 증가했지만 중요 범죄 신고는 16.8%, 가정폭력은 25.5% 각각 감소했다. 중요범죄는 9종(살인·강도·치기·절도·성폭력·납치·감금·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의 범죄를 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안행순찰(3대)·헬기(1대) 등을 활용한 입체적 교통관리를 펼친 결과, 교통사고(46건)가 전년도(74건)에 비해 37.8% 줄었다는 게 전남경찰청의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남구 덕남동 임야, 지분매매
  - ▶ 광주대 지나서 전남대병원 근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합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 64-21번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됨
  - ▶ 평당 20만원씩 200평 이상 매매함
- 문의. 010-3605-5000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로얄(34)방3	4,890	3,4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